

‘그래픽 노블’이란 독창성과 실험성을 가미한 것 떠오르는 그래픽 노블 시장

2007년 7월, 하퍼콜린스(Haper Collins)에서 출간된 그래픽 노블 《힐스 해브 아이스 : 더 비기닝》(The Hills Have Eyes : The Beginning by Jimmy Palmiotti & Justin Gray, John Higgins)이 영화화 된다. 이 작품은 미국 정부가 최초로 핵 실험을 하기 전, 마을을 떠나라는 요구에 불응한 채 남아 있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서부극과 SF를 섞은 그래픽 노블 《카우보이&에일리언》(Cowboys & Aliens) 또한 드림웍스와 유니버설 픽처스에 의해 영화화 될 예정이다. 《카우보이&에일리언》은 코믹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플래티넘 스튜디오의 히트 만화로 1800년대 아리조나, 카우보이들과 우주선 추락사고로 인해 침해를 당한 원주민들 사이에 작은 충돌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글_서주현

그래픽 노블 속속 영화화

국내에서도 8월 중순에 개봉될 영화, 〈마법의 영토〉는 SF 판타지 소설 〈멋진 징조들〉 〈금붕어 두 마리와 아빠를 바꾼 날〉 등으로 상당한 팬을 확보하고 있는 닐 게이먼(Neil Gaiman)이 원작자다. 애초 그래픽 노블로 출간돼 국내에도 번역된 《트리스탄과 별공주 이베인》(백양출판사)을 각색한 작품으로, 마법의 영토와 근접해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연인을 위해 별뿔별을 찾으러 요정 세계로 향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7월 26일 개봉된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도 존 와그너(John Wagner)와 빈스 로크(Vince Locke)의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다. 평범한 가족을 등장시켜 ‘폭력의 역사’라는 심오한 철학을 건져 올린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2005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이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톰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게 비정한 갱스터였던 과거를 들켜 되면서, 톰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

이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비극으로 빠져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그래픽 노블이 속속 영화화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영미 출판계는 공포스럽거나 그로테스크한 그래픽 노블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소년 교육을 위한 작품이나 기존에 출간된 인문 교양서를 그래픽 노블로 다시 만들어 출간하는 등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 흥미롭다.

월 아이스너의 〈신과의 계약〉에서

‘그래픽 노블’ 용어 처음 사용

그래픽 노블의 역사는 1873년 ‘앨리 슬로퍼’라는 작가가 만화를 책자 형태로 묶어서 발간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1930년대 미국에서 그래픽 노블은 DC 코믹스의 《디텍티브 코믹스》와 마블코믹스의 《슈퍼맨》 등으로 전성



기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붐이 형성된 그래픽 노블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그 시작에는 남미 작가 '알베르토 브레시아'와 이탈리아 작가 '휴고 프라트'가 있었다. 또한 만화잡지 <필로트>(Pilote)의 작가 알베르 우데르조, 르네 고시니, 장 미셸 샤를리에, 장 지로 등이 프랑스 그래픽 노블을 형성하는 주역이 되었다.

프랑스 그래픽 노블의 전환기는 1968년 학생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한 진전을 이룬다. 이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이 지금도 프랑스 만화를 주도하는 만화가들이다. 대표적인 작가가 앙키 빌랄, 자크 타르디, 자크 드 루스탈, 필립 프 드뤼이예, 조르주 피사드, 장 클로드 포레스트 등이다.

유럽 그래픽 노블의 시초로 에르제의 <땡땡>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다. 준성인층을 독자로 한 슈퍼 영웅을 다룬 미국 만화와 달리,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교양만화가 주를 이루었던 프랑스 그래픽 노블은 모험과 교훈을 다룬 만화로 성장했다. 그런 와중에 본격적으로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게 것은 월 아이스너의 <신과의 계약>(contract with God)의 표지에 기재되면서이다. 특히 이 만화의 상업적 성공은 '그래픽 노블'의 단어를 상용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유럽과 북남미에서 출간되는 그래픽 노블은 차별적이기보다는 일반 코믹스에 비해 고상해 보이려는 노력으로 칭할 수 있다. 그래픽 노블이건 일반 코믹스건 형식적인 면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코믹스에 비해 소재와 스타일의 다원성과 혼합성, 그리고 독창성과 실험성을 가미한 것들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른다. 이는 상당한 시간을 쏟

아서 기존의 코믹스라 불리는 만화에 비해 더욱 밀도 있는 그림을 그려 한 장 한 장이 고급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서양화 작품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특징은 유럽의 일부 유명 그래픽 노블 작가들의 개인전 등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들은 일반 회화 작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액자에 놓여진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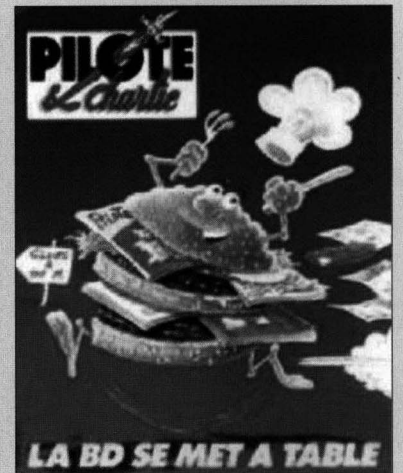
샘 레이미 감독,

만화가 형민우의 <프리스트> 영화화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래픽 노블은 <썬 시티> 이후 강렬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현재는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르다. 폭력마저 아름답게 미화시킨 그래픽 노블 작가 프랭크 밀러는 영화 <300>(원작 <300>)으로 단번에 국내 서점가에서도 인기작가로 자리 잡았다.

<300>은 현지에서도 발간되자마자 수많은 마니아를 양산해 내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그래픽 노블과 관련해 많은 상을 수상했던 작품으로, BC 480년 7월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테살리아 지방의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일어난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베트맨>(다크 나이트 리턴즈)에서부터 호흡을 맞춘 린 발리가 채색을 맡아 <300> 특유의 색감을 형성해 냈다. 프랭크 밀러의 작품 중 <썬 시티> <테어 데블> <엘렉트라> 등은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또한 <로닌>의 영화화 계획이 잡혀 있고, <썬 시티2>의 계획이 잡혀 있으니 그의 대표작이 전부 영화로 등장하는 셈이다.

<그루지> <메신저 : 죽은 자들의 공포>로 공포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샘 레이미 감독이 다음 작품으로 만화가 형민우의 그래픽 노블인 <프리스트>를 선택했다는 고무



만화잡지 필로트 표지



땡땡의 모험 본문

적인 소식도 있다. 이 작품은 미국 서부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신과 악마라는 신화적인 소재를 다룬 것이다. 현재 <300>의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으로 내정된 작품으로 멕시코에서 제작 중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국내 그래픽 노블 작가들의 활약도 기대해 본다. **조민**

서주현님은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저작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다.